

공직감사 칼 빼든 이재명, 경기관광공 직원 8명 고발

(경기도지사)

5년동안 7억원대 '부적절 계약'
공직기강확립 주문 후 첫 조치
분할계약 행태 '일벌백계' 일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 발주를 수십 회로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어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

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

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 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2000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7월 31일자로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관련 범죄 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전남 무안군 하절기 단체 헌혈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군 보건소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최근 여름방학과 가철이 겹치는 시기인데다가 폭염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높지 않아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작은 실천이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사진은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남 무안군

경기 광주 송정지구 '1300세대 주택단지' 조성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거·복합단지 조성... 9월 첫 삽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28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까지 675억 원을 들여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여㎡에 1302세대(공동·단독) 규모의 주거단지과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28만여㎡ 가운데 10만㎡를 주거용지로, 1만4000㎡는 상업용지, 2만4000㎡는 업무시설용지, 1만㎡ 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공원, 하천, 도로, 학교용지 등이다. 송정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장기

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기도 해 이번 승인이 사업 추진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정지구는 광주IC와 경기광주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경안동 등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청, 광주시법원 등이 위치한 송정동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경기 광주=김승열 기자

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중 35% 여성

여성비율 역대 최고 기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성평등 경기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발표된 5급 승진 예정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5급 승진자는 전체 4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17명이다. 특히 행정직공의 경우, 승진 예정자 15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8명이 여성이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35.4%는 민선 6기 4년 평균 여성 5급 승진비율인 21.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이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총 387명이 5급으로 승진했으며 이 가운데 84명이 여성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여성 간부 공무원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진행된 실 국장급 인사에서도 차정숙 자치행정국장과 김미성 여성비전센터소장을 각각 3급과 4급 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해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전체 공무원 3,795명 가운데 여성이 1,267명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966명 가운데 여성이 146명으로 15.1%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NH 광주전남본부 광주 진월·하남 희망상가 입점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광주 진월, 하남 행복주택 내 LH희망상가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3일 모집 공고를 하고, 일반형은 27일, 공공지원형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입찰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실수요자들에게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임대상가다.

(일반형 임대조건)

지구	총 호	임대면적(㎡)			예정가격(천원)	
		계	전용	공용		
광주 진월	1	101	39.5960	33.60	5.9960	15,075,360
		102	39.5960	33.60	5.9960	14,656,560
광주 하남	1	101	37.7956	32.25	5.5456	13,902,720

진월 희망상가는 광주 남구 노대동 825번지에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진월행복주택(460세대) 내 위치하며 일반형 2호, 공공지원형 3호로 임대규모는 전용 33㎡다.

하남 희망상가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 1161-3번지에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하남행복주택(300세대) 내 위치하며 일반형 1호, 공공지원형 2호로 임대규모는 전용 29~31㎡다. /광주=봉채영 기자

담양군 풀뿌리공동체디딤돌사업 '돈옴단계 워크숍' 개최

담양군은 지난 1일 대전행 행복센터에서 우수공동체 6개 팀 및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풀뿌리공동체디딤돌사업 돈옴단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사회적



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돈옴단계 이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 bcy2020@

장성군 그림자 가로등으로 이색홍보 '눈길'

장성군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장성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성역 광장과 버스터미널, 장성군청 정문, 서삼교, 북이면 사거리시장 다섯 곳에 최근 시범적으로 그림자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림자 가로등은 특수 필름으로 제작한 이미지나 문자를 LED 조명을 내장한 가로등에 부착해 지면이나 벽면에 투사하는 가로등으로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성군은 야간에 그림자 조명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장성군', '우리가 살고 있



는 이곳은 옐로우시티 장성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방문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다 잘 될 거야' 등의 감성적인 문구를 전달하고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 서구 정보소외계층 위한 소리로 듣는 '소식지'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생생한 광주 서구 소식을 소리로도 들을 수 있게 발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이주 외국인 등 글을 읽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소리로 듣는 소식지는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서구소식'을 대본으로 만든 뒤 녹음해 음성파일로 지원하는 소식지 낭독서비스다. 주민이 소식지를 들을 때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20분 내외로 재생시간을 줄이고 각 기사마다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었다. /광주=봉채영 기자